

30시간만에 책 똑딱...저자는 '챗 GPT'

AI가 직접 쓴 책 잇따라 출간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집필·번역·교정·교열 끝내
 뇌과학자 김대식과 챗봇 공저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덤러닝 통한 답 찾기 과정 보여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 GPT' 열풍이 거센 가운데 챗 GPT가 직접 쓴 책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18일 출판사 스노우폭스북스에 따르면 인공지능 챗봇 '챗 GPT'가 직접 쓰고 편집과 교열까지 본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 오는 22일 출간된다.

챗 GPT는 인쇄와 출간 작업을 제외한 집필·번역·교정·교열 등 고유의 편집 작업을 단 30시간 만에 끝냈다. 번역은 AI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다. 책에는 한글 원고와 영문 번역 본문이 함께 수록됐다. 책 표지는 여러 시안을 AI가 제시했으며 그 가운데 편집자가 선택해 골랐다.

책은 '인연' '만족' '하루' '인생' '목적의식' 등을 키워드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4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책을 기획한 서진 대표는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출판계가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에서 AI의 성능과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획안과 목차 정도의 짧은 내용을 AI에 입력했고, AI는 단시간 내에 진화하는 학습 능력을 보이며 비교적 완성도 높은 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한계도 분명했다. AI는 각 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문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썼으나 각 장의 유기적 연결까지는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했다.

서 대표는 "10페이지 정도는 놀라울 정도의 완성

도를 보였으나 여러 장을 아우르는 유기적 연결에서는 미흡했다"며 "책의 전반적인 연결성에선 인간 저자에 견주어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각 장의 내용을 5천 자 정도로 요구했으나 3000자 분량밖에 채우지 못했다. 학자나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할 때도 편집자의 지시가 있거나 전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만 서 대표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저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글을 작성하면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역량 있는 저자에게 대단한 비서나 팀원이 생긴 셈"이라며 "AI와 협업하는 작업은 전문가들에게 대단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역량 있는 전문가와 챗봇과 함께 쓴 책도 선보인다. 국내를 대표하는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질문하고 챗 GPT가 대답한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동아시아)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한 달간 십 여차례에 걸쳐서 챗봇과 대화를 나눴다. 챗 GPT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작동원리를 설명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사랑이나 정의, 죽음, 신 등 인간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주제들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작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챗봇의 발전 속도였다. 챗GPT는 사랑이나 정의 죽음 등 추상적 질문에서는 두루뭉술하고 애매하게 답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심화학습' (덤러닝)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육체가 꼭 필요할까?" (김대식) "사랑과 이와 관련된 신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은 신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육체가 없는 객체의 경우에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챗GPT)

모든 대화는 영어로 이뤄졌으며 번역과 교열, 편집 작업은 모두 '인간 전문가'가 담당했다. 책은 오는 27일 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SBS '모범택시2' 이제훈

“더 통쾌해진 ‘복수 대행’ 기대하세요”

첫 방 시청률 12.1%

역술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침없이 그려내며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모범택시'가 시즌2로 돌아왔다.

새롭게 돌아온 복수 대행극 '모범택시'가 시청률 12%대로 출발했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17일 밤10시 방송된 SBS '모범택시2' 시청률은 12.1%로 집계됐다. 드라마는 첫 회부터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이제훈은 "시즌1에 비해 훨씬 잘 맞는 배우들의 호흡과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력이 더해져 지난 시즌보다 더 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시즌1에서는 학교폭력부터 직장 내 갑질,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만연한 범죄를 조목조목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크 히어로의 힘을 빌려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을 통쾌하게 그려냈다.

이제훈은 "드라마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범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이번 시즌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해자들을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즌2 연출을 맡으신 이단 PD님께 맡겼 굴러도 좋고 내다 봐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고 웃으며 말했다.

'모범택시2'에는 범죄자들을 사냥하는 택시회사 무지개운수 직원들이 지난 시즌에 이어 그대로 출연하고, 새로운 멤버도 영입했다.



무지개운수에 새롭게 취직한 신입 일반 택시기사 윤하준 역에는 배우 신재하가 나섰다.

씩씩하고 해맑은 성격과 귀여운 외모 덕에 누구에게나 쉽게 호감을 사지만 운행에만 나가면 사고를 치는 캐릭터다.

연출을 맡은 이단 PD는 시즌2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배우들의 '부캐' (부 캐릭터) 연기를 꼽았다. 무지개운수 직원들은 선생님 또는 학생 행세를 하며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하는 식으로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 활동한다.

이 PD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인 사기나 부동산 사기 등 실생활에 가까운 주제들을 가져왔고, 수위를 조절해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맞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셴 언니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대한민국 여자 댄스 가수 계보를 잇는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뭉쳤다.

tvN은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가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담은 '댄스가수 유랑단'을 올해 상반기 선보인다고 밝혔다.

'댄스가수 유랑단'은 이들이 전국을 돌며 다양한 팬들을 만나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담는다. 멤버들은 특별한 주제를 바탕으로 각기 개성과 역량을 극대화 한 무대를 선보이며, 무대마다 스페셜

단원들도 출연한다.

이효리가 출연하는 예능 '서출 체크인'과 '캐나다 체크인'을 만든 김태호 PD와 강령미 PD가 연출을 맡았다.

댄스가수 유랑단은 서출체크인 촬영 중 이효리 아이디어로 시작했다. 이효리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 MAMA'를 준비하며 떠올린 댄스 가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댄스 가수 유랑단 로케이션과 콘셉트, 시기까지 논의해 기대를 모았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 4개 사업 공모

문화재단 오늘 사업설명회...27일~다음달 6일까지 접수

예술시민 배움터, 창의예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광주문화재단은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위에 열거한 4개 부문이며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월 6일 오후 5시까지다.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gjarte@gjcf.or.kr)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0일(오후 1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먼저 '예술시민배움터'는 기존 2개 사업을 1개

로 통합했다. 올해는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일차(주말, 평일)의 경계를 허물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창의예술학교'는 문화예술교육기관 공간운용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개발이 주 목적이다. 올해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방식은 4개 단계, 1개소(1개 사무국, 3개 컨소시엄 단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하며, 지원규모는

2개소(8개 단체).

'유아문화예술교육'은 만 3-5세 유아 대상으로 '예술'과 '놀이'에 중점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유형은 일반 운영과 인큐베이팅 운영으로 나뉘며 1년 이상 경력의 기관(단체)은 '일반 운영', 경력 미달은 '인큐베이팅 운영'에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는 신진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해 문화시설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대상이 되는 국·공립 교육시설이 우선 선발 대상이며,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공적 문화시설 등이 해당된다. 4개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은 1개 기관(단체) 당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